

2021 지구를 구하는 창작 노트

최귀순

2021년 지구를 구하는 창작 노트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

최귀순

세界的 관심사는 인간 존재의 이유에서 부터 온다.
이 지구상에는 많은 인종이 함께 교류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인간사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발전하여 공유하면서 살아야 한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편견을 가지고 대략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통하여는 그들의 편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은 1992년부터 인간 단제가서
개최해 온던 <재활의 날>로 정한 바다.
그러다 1981년 UN 총회에서 장애인에 관한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 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 하였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도 '제 1회 장애인 날'
기념을 시작으로 행사를 전국 규모로 크게
시작했다. 기념식은 복지유공자 포함하고
장애인 극복 상, 장애인 수기 상, 축하공연 등
장애인을 위한 장을 마련했다. ^{이후}
종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고 그들의
인권과 행복할 권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2. 장애에대하여

장애의 등급은 국가에서 규정하는 유별별
등급이 있지만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로
나누어 보면 모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에 따른 장애인 복지법 >

○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자를 말한다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 1항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 수증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정령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신체 장애인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구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과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그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 관절 이상의 부위
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그 이상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적추에 전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신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 장애인

외성아비 외성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능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은 사람.

3. 시각 장애인

가) 나쁜 눈의 시력 (만족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표정시력을 말한다,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 데시벨 이상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 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인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청각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영구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신장장애인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7. 심장장애인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호흡 곤란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8. 호흡기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9. 간장애인

간의 만성적 기능 부전이나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0. 안면장애인

안면 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수화행위를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1. 상류, 요루 장애인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상류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충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2. 청각 장애인

청력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3. 정신지체인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이
활성이 불충분 하거나 불완전 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14. 정신장애인

차곡적인 정신분열증, 분열성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조현병, 함음

15. 발달 장애인 - 자폐증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하
여, 시제호전, 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류와 기능

1)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 지역사회 생활지원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2) 중증장애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해 광범위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 지역사회 생활 지원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3)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근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발에 필요한 주거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 요양 서비스를 하는 시설

4)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복제 용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5)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수리해 적응하기 위해 전문 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 시설입니다.

○ 장애인 지역사회 재향시설의 종류와 기능

1.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지도제량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향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2.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장애인은 주간에 일차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의 문화 취미 오락 활동 등을 심신수련을 조장 및 지원 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4.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 센터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용 차량 할당권 외출보조 또는 그 밖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전국 수어 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장애 언어장애 인에게 전국 수어 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6. 전자 도서관

시각장애 인에게 전자 간행물 및 녹음서를 연결하게 하는 시설.

7. 전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시각장애 인을 위한 전자 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 하는 시설.

이 외 장애인 재향복지 시설이 있다.

< 장애인에 대한 편견 >

1)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벽을 허물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곧 장애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면 굳이 장애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무척이나 정상과 비정상, 우리와 너희 등 다양하게 사람들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이 아닐까? 편견과 차별의 벽을 어떻게 낮추고 허물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장애인 인권정안 토론회에서 밝혀진 실태를 살펴보면 법이 시행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 까지 장애 병 관련해서 조사한 바 653건에서 1만145건으로 17.5배가 늘어났다 이것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최근에 공식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들의 의식이 공동체 되었다는 것은

안 수 있다.

그러나 법제도의 정비정도 보완해야겠지만 먼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적 인식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법제도가 장애인의 차이를 보호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 구성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거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동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애등급 폐지를 보면 10명 중 9명이 휴전성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은 즉 나는 언제 장애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 학교 설립을 필요시점으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모두가 다르다 그 차이를 억지수지 생각으로 용감함을 준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권리는 함께 보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 나라의 장애인

고용과 인권 복지 수준은 여전히 열악하고
부끄러운 수준이며 매년 장애인의 삶마다
기념식에서 되풀이 되는 다짐과 약속은
구호에 그치고 있을 뿐 변화의 모습은
그리 보이지 않는다.

★ 장애인에 대하여 여러 자료들과 인권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이러한 관심은 경각 노르를 통하여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동화를 써보려고 한다

※ 2002년 장애 청소년들과 3년 동안
중치기 교실을 하며 느낀 것들을 동화로
써기 본다.

※ 실화를 바탕으로 쓴다.

○ 창작 노트 <동화>

○ 제목 : 꿈꾸는 나무들 <계몽 나무들>

○ 배경 : 장애인 활동가와 특수학교 교사

○ 나오는 사람 :

○ 선생님 : 작가 (장애 청소년을 만나서 글씨
를 지도한다)

○ 김지연 (외상장애) - 24

장래 희망 : 사회복지사, 작가

○ 오수 : (시각장애)

장래 희망 : 성악가

○ 정선영 (청각장애)

장래 희망 : 사회복지사

○ 진주 : (시각장애)

장래 희망 : 사회복지사

○ 여자, 분영, 레인, 김형준, 허옥환

은하, 은숙, 광식, 용준.

☆ 충청에는 장애(특수)학교가 있어
소개 한다.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충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충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약 2개월 전



미디어활동프로그램 '살답소 2기'의 모습



2021 문화여가프로그램 '힐링무브'..

☆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자료를
~알아 보는 방법도 있다.

춘천효자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소외계층 아동의 안전한 돌봄과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아이들만의 공간으로 설립되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특기교육, 대상자 교육에 기반한 다양한 문화활동, 정서지원프로그램 등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의 꿈을 키워나가는 곳입니다.



운영철학 및 비전

1. 춘천효자지역아동센터는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우선시 합니다. 아이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자신입니다.
2.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다움을 가르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3.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아이들의 기본 학업실력을 갖추고 소질을 개발하여 자기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사업 특목한(Talk T

후원안내

한 사람의 열 걸음도 좋지만
열 사람의 한 걸음을
기다립니다.

(http://www.ccrehab.or.kr/bs/board.php?bo_table=0402)

<총평>

2021년 지구를 구하는 창작 노트 - 장애인에 대하여 -

* 예술인 최귀순

세계의 관심사는 인간존재의 이유에서부터 온다.

이 지구상에는 많은 인종이 함께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인간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인권을 존중할 때 공유하며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유독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번 지구를 구하는 창작 노트에서도 우리 곁에는 있지만 없는 듯 무관심 해 왔던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이해하는 데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다.

장애인을 생각하는 역사적 장애인의 날이라고 정하게 된 배경에는 1972년 한 민간 단체에서 시작했다. 처음엔 [재활의 날]이라 칭하였다. 그 후 1981년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 완전한 평등이란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면서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였다. 그로부터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보는 시각도 점점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면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계기가 된 것을 볼 수 있다. 어쩌면 그 당시에도 아주 극소수의 관심이었을 것이다.

솔직히 바라보는 것과 체험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나는 한 십 년 전 장애 청소년들을 상대로 글쓰기를 가르치고 같이 하면서 직접적으로 느낀 바가 많았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온 몸이 아픈 것이다. 몸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는데 다 마음까지 다치고 있었고 사회생활이 잘 안되기 때문에 가난을 안고 살았다. 그들도 사람인데 다만 불편하게 태어났을 뿐인데 그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미국 사람일 것이고 내가 흑인이었다면 검은 피부를 원하지 않아도 흑인이 된 것처럼 우린 누구나 다 그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숫자를 보더라도 태어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보다 후천적 사고로 인한 장애인이 전체 80프로라고 한다. 후천적 장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도 직 간접적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그들은 바로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해야 하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조금만 고개를 돌리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이해한다면 이 사회는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사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처우개선이나 시설서비스, 체육 문화 예술에 대하여 나름 노력을 보여 주고 있지만 아직도 그 뒤에서 가난과 도움을 받지 못 하는 장애인들이 많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만나면서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었다. 우리들의 이기적인 행동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감을 주고 소외감을 주었는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어머니의 한 마디가 가슴을 아프게 한다.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은 누가 돌봐 줄까요?”

남편도 없이 홀로 뇌병별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목소리는 누가 위로해 주어야 하는데 그 대답은 메아리처럼 다시 돌아와 그 어머니에게로 갔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러난 현실은 비참 했다. 장애를 둔 어느 엄마의 극단적 선택은 잠깐 뉴스에 비추어지고 말았다. 전 후도 없이 모두에게 잊힌 것이다. 우리들은 점점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서로서로 품앗이 하던 시대도 가난한 이웃에게 자기 옷을 벗어주던 인심과 정은 이미 살아졌다. 점점 기계화 되는 삶. 사람들도 그렇게 차갑게 되는 것은 아닌가. 슬프고 안타까움이 가슴을 조여 왔다.

아주 드물게 이번에 만난 지연 씨는 복지관 주선으로 관할 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다. 순수한 마음과 애뜻한 사랑이야기를 하면서 기뻐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울컥했다.

“제가 운이 좋았어요.” 라고 말하는 그녀를 보면서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오래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다. 사실 이번 창작노트가 아니었다면 장애인에 대하여 그들을 다시 생각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이런 기회를 주신 시 문화재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또한 창작 노트를 쓰면서 장애인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꿈꾸는 나무들]이란 제목으로 동화를 썼다.

2021. 6. 25